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내일을 말한다

2010년 조선일보와 일본 마이니치(毎日新聞)신문은 공동으로 '한일 강제병합強制併呑 100주년, 내일을 말한다.' 제목 아래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총리를 각각 인터뷰하여 8.28일자에 동시 게재했다. 김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실는다. (2010. 8.28 조선일보 인용)

질 : 김 총리께서는 1962년 11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때 당시 오히라 외상과 3시간 30분여에 걸쳐 담판해서 '김-오히라 메모'를 이끌어 내셨는데, 우선 당시 담판의 비화秘話를 듣고 싶습니다.

답 : 오히라 외상과 3시간이 넘어서야 실마리가 풀릴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오히라는 '8천만 달러가 최대한'이라며 처음으로 청구권請求權 자금 숫자를 꺼냈어요. 오히라는 이는 이케다 총리가 지시한 금액이라고 했지요. 내가 오히라에게 '당신과 (세 시간) 얘기하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주는 인색한 나라가 8천만 달러는 무슨 8천만 달러냐.'고 쓰아붙였더니, '아, 죄송하게 됐다.'면서 비서실 문을 여는데 기자들이 짹차 있더라구요.

나는 그때 오히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끝을 보게 한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리라고 했고, 그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려보자, 또 그 뒤를 이어 260년 이상 막부幕府를 차려 일본을 지배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 보자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두견새를 울려 보자고 한 도요토미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라가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곧 본격 대화가 진행됐는데, 내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협상카드인 8억 달러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오히라가 별떡 일어나 방안을 둔우(鈍牛·오히라의 별명)처럼 걸어 다닙니다.

한 시간쯤 더 격렬한 논의 끝에 최종 '6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1억 달러)+알파'안을 제시했고, 고민하던 오히라 외상이 '나는 이제 죽었다.'면서 이를 수용해 메모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시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 이완용'이라고 욕먹을 각오로 협상에 뛰어 들었죠. 이후 8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으로 포철浦鐵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질 : 100년 전 조선왕조는 망하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로 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당시 상황을 진단해 주시지요.

답 : 진단 간단해요. 일본 사람들은 남의 것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드는 기막힌 소질들이 있어. 명치유신 같은 것을 해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이 있어. 그래서 해결하고 나갔어요.

우리는 외교집을 버리지 못하는 완고성頑固性이 있어요. 그게 외부세력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막았지. 우리는 일본보다 근 100년 늦게 알았지, 살아나가는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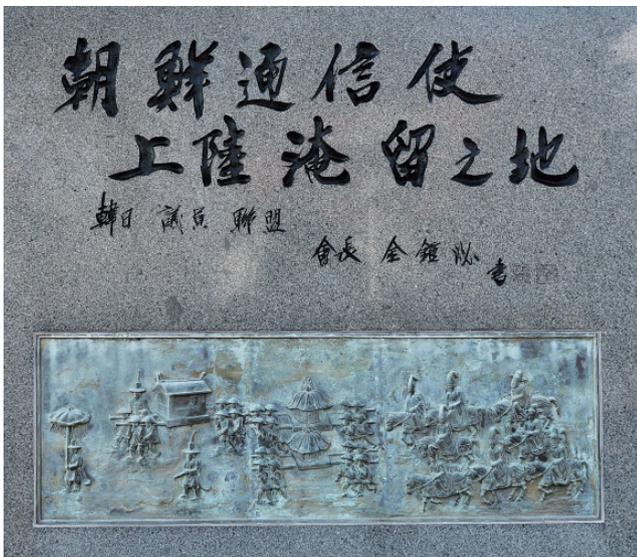
질 : 한국민이 '잊어선 안 되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답 : 36년간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한국민이 당한 박해와 고통은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경영을 하는 것은 세계질서 속에서 미래를 통찰하는 지도자의 혜안慧眼, 국민통합을 통한 국력의 증강이 필수예요.

질 : 앞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 앞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일본보다 중국이 문제요. 일본은 속에서 내키지 않더라도 협력할 거지만, 그러나 중국은 국익國益이 상치相馳된다고 해서 방해할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그런 양 옆의 나라들이 (통일을) 반대 안 하는 나라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모노세키下關에 있는 朝鮮通信使 上陸淹留之地 조선통신사 상륙엄류지지 비석. JP가 쓴 붓글씨를 새겨 기념비로 만든 것이다.

질 : 북한 급변사태急變事態 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답 : 난 모두가 우려할 정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으르렁거리지만 그 정도지. 다만 중국이 북한 편을 너무 들어, 그게 걱정이에요.

질 : 중국의 G2 부상浮上 국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중국은 이제 변수變數가 아니라 중요 상수常數가 되었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어요.

이제 한일관계는 한·일·중 삼각구도三角構圖 속에서 파악해야 해요. 3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끌고 가야 해. 미국은 사이드에서 도움을 주고….

질 : 다음 달 44년만의 북한 당 대표자회의에서 권력세습의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들 합니다.

답 : 북한이 어느 날 어떻게 할 수 없이 무너질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그러나 가까운 시기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나는 보지 않아. 아직 멀었어요. 후계자를 정하든, 미국도 사실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질 :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를 꺼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답 : 독도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실효지배實效支配를 하고 있는 한국이 그냥 현상유지 하도록 '미해결이 해결'이라고 그렇게 일본이 이해하면 세상 편할 겁니다.

질 : 1962년 오히라 외상과의 협상 때 '독도폭파론獨島爆破論'을 얘기했다는 말도 있던데….

답 : 오히라 외상과 합의가 다 끝나고 커피 한 잔 더 달라고 해서 마시며 얘기하는데, 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해야겠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발끈했어.

그래서 '이걸 당신네 땅이라고 우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 거라고 판결나도 다 폭파해버리고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네 손에 들어가게는 안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폭파소리가 나온 겁니다.

질 : 일본과 한국의 미래를 밝은 쪽으로 보십니까?

답 : 일본 속담에 '내일 이야기를 하면 도깨비가 웃는다.'는 말이 있어. 그러나 일본의 내일이나 한국의 내일을 얘기하면 희망의 화제가 되지.

일본은 정부 부채負債가 있다고 하지만, 그저 다 누르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의지도 있는 나라야. 우리도 이제 밀고나갈 수 있는 의지도 방법도 알고 있고….